



신안 '천해의 미소 천일염 세트'

'대한민국 3대명인 된장'

강진한지 백화고세트

나주 '동의나라 유기농 뽕잎차 세트'

## 추석엔 '고향의 情' 선물 어떨까

광주 백화점들이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세트를 앞세워 '고향 마케팅'에 나섰다. 된장·토종 꿀·한우·토종 김·표고·천일염 등 갖가지 특산품으로 출향 인사들에게 '고향의 정'을 선물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등 지역 주요 백화점들이 장인정신이 깃든 지역 제품을 비롯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특산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5년 이상 숙성한 간장세트를 15만원에 내놓는다. 달양 고씨 문중에서 360년간 전해진 비법으로 10대 종부 기순도씨가 직접 담근 간장이다.

또 나주에서 35년간 전통 양봉을 고집해 온 김희성씨가 재배한 전통꿀 '나주 가보 프리미엄 고기구 토산꿀'(6만원대)을 내놓는다.

이밖에 지역에서 58년간 차 산업을 이끌어 온 한국제다의 '3인다가 분청세트'(8만원대)를 비롯해 전남도 우수농식품 브랜드 '남도미향'에 선정된 '나주 동의나라 유기농 뽕잎차 세트'(5만원

### 광주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 된장·표고·한우세트 앞세워

#### 출향인 겨냥 '특산물 마케팅'

대)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해의 미소 천일염 세트'(16만5천원)를 선보인다. 유네스코 생활관 보전지역으로 신안군 도초도에서 2대째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소금박사' 최신일씨가 만든 '명품' 천일염이다.

장흥에서 17년 동안 표고버섯만 재배해 온 선

옥규씨의 명이 표고버섯인 '선옥규 유기농 백

화고 세트'(15만·30만원)와 '흑화고 세트'(10

만·25만원) 등도 판매될 예정이다.

'순창 문옥례 명인 장류세트'(28만원대)는 7

년째 장을 담고 있던 장류 명인 문옥례씨가 직접

담근 것으로 전통찹쌀고추장, 굴비장아찌, 더덕 장아찌, 매실장아찌 등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이밖에 친환경 지리산 한우로 구성된 '한우 알뜰세트'(2.8kg·17만원대)를 비롯해 '남도미향 토종김 세트'(10만원대), '나주 수삼세트'(13만·18만·25만원대), '완도 덕수도 활 전복세트'(15만원), '담양한과 하늘연'(8만·25만원대) 등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장흥 표고버섯'(5만~10만원대), '완도 전복세트'(20만원대) 등 지역 우수 특산품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추석선물세트는 광주신세계백화점이 9월 14일~10월 4일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윤중 영업총괄팀장은 "이번 추석선물세트에는 지역 특산품을 대폭 보강했다"며 "지역 상품의 관로개척을 돋고 전국적인 명품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선거 끝나면 대치도 끝나나

### 오늘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 선출

2일 치러지는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장 선거에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마자들이 정리해고 철회·임금 보전 등 현 집행부와 유사한 공약을 내걸고 있긴 하나, 선거 이후 집행부가 새로 꾸려지면 대치국면을 해소할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호그룹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도 "박삼구 명예회장의 전횡과 과욕, 그릇된 현실인식으로 인한 문어발식 몸집 불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삼구 전 회장이 공식 대외 칭구로 법무법인을 지정함에 따라 해임조치의 부당성을 짜는 소송 등 일련

의 법적조치에 나설 듯을 공식화함과 동시에 조만간 실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박삼구 명예회장측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현장의 힘', '민주노동자회', '실천연대' 등 3개의 현장노동운동조직을 대표하고

있다. 현 지회장인 고광석 후보는 "물러서면 죽는다"며 당선되면 현행 투쟁 방식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승철 후보는 당선 뒤 곧바로 정의행위를 중단하는 '평화기간'을 설정하고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철 후보는 금속노조 재평가 공약을 내걸었다. 노조원들의 의견을 향후 금속노조의 투쟁 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2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조합원 3천900여명이 참여하는 투표를 거쳐 임기 2년의 3기 지회장을 선출한다. 이날 오후 3시쯤에 당선자 윤과이 나을 전망이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한편, 일부 후보들은 '부분별한 투쟁 중단'이나 '쟁의행위 유보'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이런 기대에 힘을 실어준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금속노조 선봉대가 아니다"며 삼급단체인 금속노조와의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후보도 나왔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현장의 힘', '민주노동자회', '실천연대' 등 3

개의 현장노동운동조직을 대표하고

## 금남지하상가 점포 84곳 결국엔 공개 입찰

### 원분양자-세입자 합의서 제출 못해

광주시가 금남지하상가 1공구 94개 점포에 대한 임대 계약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냈다. 이를 점포들이 임대신청 과정에서 원분양자와 세입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재계약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금남지하상가 1공구 204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 계약에 나선 결과 1순위인 직영 점포 43곳을 제외하고, 77곳만이 시가 2순위 조건으로 제시한 원분양자와 세입자 간 합의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냈으며, 7일부터 11일 까지 신청을 받아 14일 입찰에 부친

권한을 가진 분양자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인정될 줄 알았다가 투자비를 날리고 임대보증금까지 내줘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세입자들도 불만이 크다. 이들은 당장 입찰에서 떨어질 경우 경유보증금마저 쟁기지 못하고 점포를 내줄 협의에 처했다. 한 세입자는 "불러설 곳이 없다"며 "시도시공사가 입찰에 떨어지면 점포를 비운다는 각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단전·단수에 들어가 장사도 못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시도시공사가 입찰에서 떨어진 세입자들이 점포에서 버티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각서를 쓴 점포에 대해서만 14일 입찰 일자 전기나 물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분양자 대표 50여 명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 물려가 항의시위를 벌였다. /윤현석기자 chadol@r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일 면역력 강화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홀삼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가격은 홀이장군 12만원, 홀삼통풀드 16만원.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 '형제의 날' 금호 박前 회장 "법적대응"

### 공식 법률 대리인 지정

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부문 회장이 지난 7월 '형제의 날' 이후 한달만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대응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산지는 1일 본지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박 전 회장의 대외 입장문을 공식화해놓은 일을 맡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산지는 이메일에서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박삼구 명예회장과 이사회에 이사회 회장으로 법무법인을 지정함에 따라 해임조치의 부당성을 짜는 소송 등 일련의 법적조치에 나설 듯을 공식화함과 동시에 조만간 실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박삼구 명예회장측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박삼구 명예회장이 박찬구 전 회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진실을 은폐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고 밝혔다.

산지는 또한 "이사회가 박 전 회장

에 대한 해임사유로 언급한 '제무구조 개선'과 '날인거부'와 다른 대표이사의 인감 반환거부'는 대우건설 풀백

옵션에 따른 경영상 책임을 금호서유화학과 다른 계열사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금호그룹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도 "박삼구 명예회장의 전횡과 과욕, 그릇된 현실인식으로 인한 문어발식 몸집 불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찬구 전 회장이 공식 대외 칭구로 법무법인을 지정함에 따라 해임조치의 부당성을 짜는 소송 등 일련의 법적조치에 나설 듯을 공식화함과 동시에 조만간 실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박삼구 명예회장측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현장의 힘', '민주노동자회', '실천연대' 등 3

개의 현장노동운동조직을 대표하고

있다. 현 지회장인 고광석 후보는 "물러서면 죽는다"며 당선되면 현행 투쟁 방식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승철 후보는 당선 뒤 곧바로 정의행위를 중단하는 '평화기간'을 설정하고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철 후보는 금속노조 재평가 공약을 내걸었다. 노조원들의 의견을 향후 금속노조의 투쟁 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2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조합원 3천900여명이 참여하는 투표를 거쳐 임기 2년의 3기 지회장을 선출한다. 이날 오후 3시쯤에 당선자 윤과이 나을 전망이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 중소상인 롯데아울렛 사업조정 신청

광주지역 중소 상인들이 전국의 의류 판매업체에 최초로 롯데아울렛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1일 광주지역 판매업체연합회(이하 의류협회)는 "2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 종합회에 롯데아울렛 광주 수완점을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종합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실태 조사 후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게 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23.06 (+31.21)
코스닥지수	516.27 (+1.57)
금리 (국고채 3년)	4.37% (-0.01)
원·달러 환율	1,240.70원 (-8.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부동산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대표이사 010-7570-7525

주택사업/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간접기 초자기 비고

화물창 대625, 건1017 66억9천 24억 보석길길

농지 대281,3,25383 3억4천 30억 예상

폐지대 대779,258 795천 4억2천 주우수

밀집밀 대4500, 건4009 64억6천 36억2천 평집밀

도로등 대181,2582 689천 3억6백 음식점화장실

상가동 대994,2588 105억7천 4억8천 거래부동산

문화동 대339,2133 594천 3억 유동주